



포장기계업계 새장을 열다

창립 30주년 맞아 제도약

포장기계업체가 창립 3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나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내 포장기계업체의 수명이 단명인 것에 비하면 (주)홍아기연의 역사는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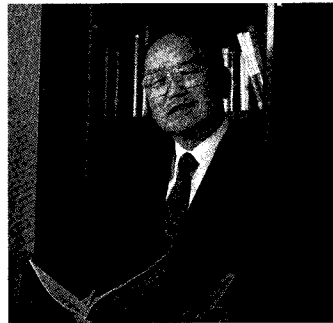
그것도 브리스터(PTP) 포장기만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 우수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위상을 한 층 높여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1970년 12월 홍아무역으로 시작, 제약포장기 관련 무역업을 담당하다 10년뒤 홍아기계를 설립하면서 브리스터포장기 제조에 나섰다.

다시 10년 뒤인 1992년 홍아무역과 홍아기계를 합친 (주)홍아기연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래 도약의 길로 들어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 나왔다.

1995년 무재해운동 개시 후 지난해 9월 3일 무재해 5배달성, 제32회 무역의 날(1995년 11월 30일) 1백만불 수출탑 수상, 1996년 EM마크 획득, 같은 해 11월 '96 우수자본재개발 국무총리상 수상, 제33회 무역의 날(1997년 3월 7일) 통상산업부장관상, '97 국산개발우수자본재 포장기계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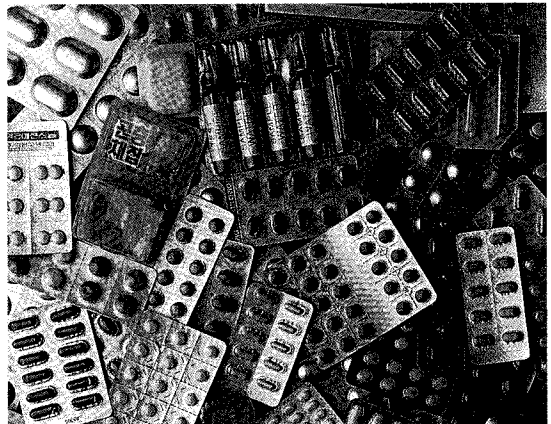
1998년 7월에는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데 이어 '98우수품질인증



◀(주)홍아기연 대표이사 강대희

제품상 유공자부문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지난해 '99안전경영대상 우수중소기업상, 2000년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 CE마크인증획득까지 승승장구 해 왔다.

홍아는 전세계 33개국에 수출, 세계시장 10%



▲ 홍아기연 브리스터 포장기계 포장제품

를 점유하고 있다. 해외 전시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전략과 ABC(after, before, consulting) 서비스를 내세워 시장을 공략했던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또한 95년부터 연평균 10%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그 원인 가운데에는 중소기업으로써는 드물게 총 매출액의 7% 정도를 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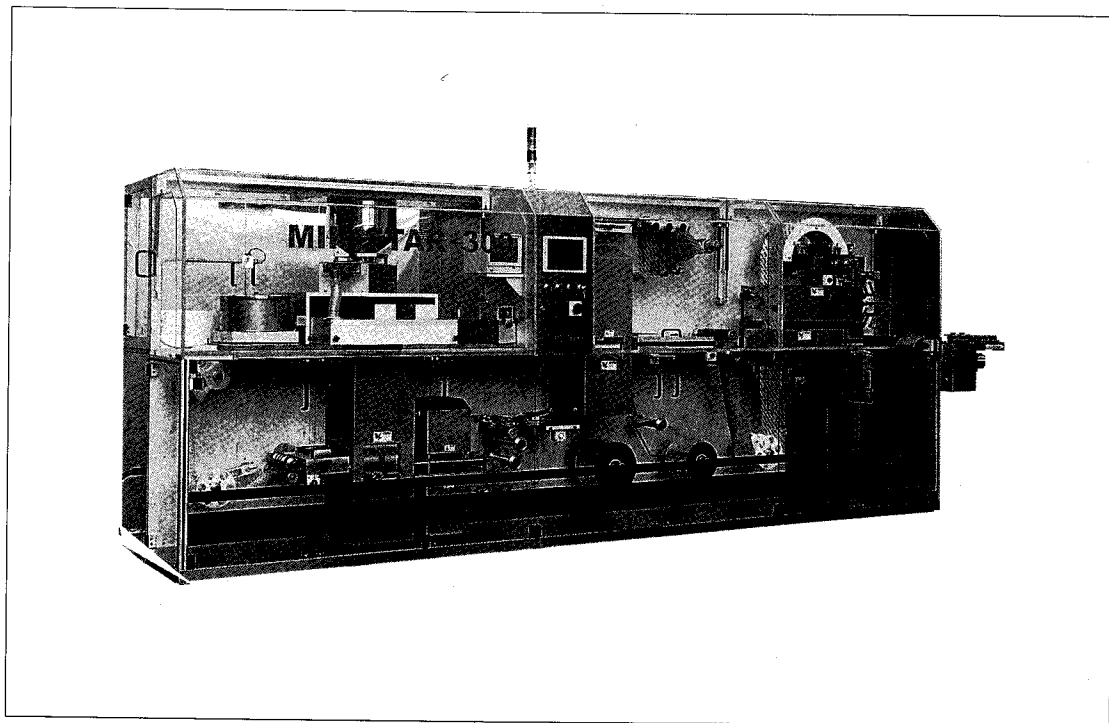
이같은 결과로 매년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PACK EXPO 2000에서 유럽의 브리스터포장기 업체들이 기계를 참관하면서 관심을 갖는가 하면 앞으로 자사 제품에 가장 위협적인 제품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홍아가 발전과 성장을 계속하기에는 相敬互惠를 바탕으로 한 전 임직원의 단결과 “지구촌을 무대로, 세계인을 친구로”라는 슬로건으로 말은 바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보통 산업에 있어 주기가 30년입니다. 홍아가 올해로 30년을 맞아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는 것도 시대에 부응하는 발맞춤입니다”라는 강대회 사장은 21세기 홍아기연의 새로운 모토를 “NUMBER ONE보다 ONLY ONE”으로 바꿨다.

최고이기 보다는 유일한 업체로 남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는 말이다. 브리스터포장기를 제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물론 브리스터포장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모두



▲ 최초로 개발돼 호평을 받고 있는 MINISTAR-300



▲ 홍아기연 전경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닌 홍아만의 독특한 유일한 제품생산 업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홍아는 기존 기계의 틀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사용의 편리성, 고급화된 기계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알루미늄 단일재질만으로 포장이 가능한 친환경 기계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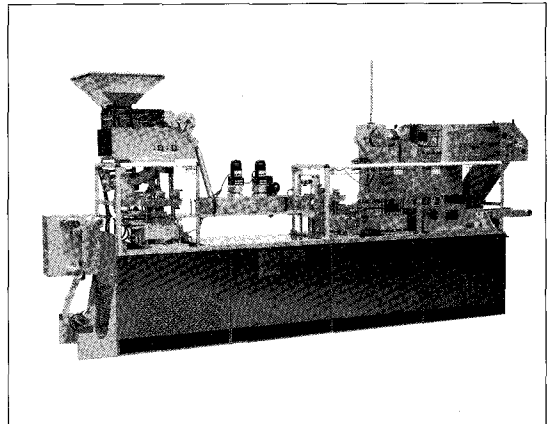
1980년대 초 홍아가 브리스터포장기를 생산할 당시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하여 개발, 우리실정에 맞도록 생산되었다.

(주)홍아기연의 MINISTAR 브랜드의 브리스터포장기는 주문에 의해 제작되는 제품으로 일정 제작기간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독특한 기술력과 집약적 부가가치를 올리는 특징을 지닌 제품이다. 따라서 포장기계의 세계화는 얼마나 수준 높고 정밀하고 정교한 기능을 갖추느냐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한 홍아는 세계 5대 브리스터 메

이커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또한 20년간의 노하우와 축적된 설계, 생산기술로 국내외 유저들의 수요에 질과 양에서 만족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명실공히 세계속의 브리스터 메이커로 자리잡았다.

축적된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의 향상된 기술력



▲ Blistar Packaging System

으로 지구촌에서 경쟁력있는 상품수준으로 네임 벨류를 인정받아 수출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홍아의 미래를 판단하는 안목이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시장의 수요한계를 벗어나 올바르고 독창적인 수준의 상품을 만들어 더 효과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을 만들어 외화획득을 창출했던 홍아가 세찬 기상변화에도 꺾듯하게 버틸 수 있었던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용과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홍아의 점진적인 변화는 강대회 사장의 경영기법에서 나타난다. 욕심부리지 않고 꾸준한 안목으로 능력껏 일하는 스타일, 그러면서도 최고의 제품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신이 오늘의 홍아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강 사장이 외국 기업들을 부러워 하는 면이 있다. 중소기업을 대물림하여 이끌어 가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2세 경영체제가 되면 급하게 서둘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을 보아 온 강 사장은 착실하게 경영수업을 받아 무리없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강신영 전무는 이러한 부분에서 믿음을 주고 있다.

능력있는 대물림을 하겠다는 강 사장의 지론처럼 운영에 있어서 홍아만의 취향에 맞게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우리 나라 기업의 경우 시대 흐름과 여건을 못 맞추고 기술개발이 이어지지 않고 욕심이 많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강 사장은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 전임직원은 보람으로 일하고, 업계에서는 부러움으로 쳐다보는 회사로 키워놓았다.



▲ 홍아기업 조감도

기업 환경개선, 직원 복리후생을 최우선으로 살맛나는 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홍아의 목표는 경쟁이 아닌 자신만의 색깔을 갖는 것이다.

수출비중 50%, 세계 33개국 수출, 전용기 10여대, 500대 납품, 5,000개 금형 등 외형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에 대한 높은 평가는 부정할 수 없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과 기술개발, 전 임직원의 노력이 어울어져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30주년을 계기로 재도약에 나서는 (주)홍아기업이 NUMBER ONE이 아닌 ONLY ONE으로 거듭나 브리스터의 명가로 우뚝서길 기대한다. ☐

〈鎮〉